

음악에서 대항해 시대 맞이하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 “5년만에 처음 연주없이 지내... 20대 후반 책임감 더 느껴”

내달 8일 새 앨범 '방랑자-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발매

방랑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지만, 피아니스트 조성진(26)의 항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 첫 '쇼팽 콩쿠르 우승자'라는 수식은 일찌감치 태어 버리고, 음악이라는 바다에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2년 만 18세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을 당시 몇 년 동안은 어디가 집인지 혼란스러웠다. 방학이나 연주 때문에 다시 찾은 한국이 집 같고 다시 파리로 오면 그곳이 집 같았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독일 베를린에 터전을 잡았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사는 기간은 1년에 너댓 정도. 항상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것이 직업이니 호텔이 집 같기도 했다.

그러다 조성진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내가 있는 곳이 집이구나." 하지만 그것이 안주는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세계 공연계가 얼어붙었지만, 온라인 콘서트로 그의 항해는 이어졌다. 실제 많은 한국의 팬들이 8400km를 순식간에 쉬지 않고 달려온 그의 슈베르트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밤 10시 독일 베를린 텔텍스 스튜디오에서 조성진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약 1시간 동안 들려준 슈베르트 가곡은 강한 인력(引力)을 발휘했다. 몸은 떨어져 있을 지라도, 음악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성진은 14일 유니버설뮤직을 통한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객 없이 라이브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초반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콘서트를 여는 것처럼 예너지를

느꼈다"고 흡족해했다.

조성진은 연주 없이 쉬며 지내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괴르네는 커리어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음악가들 중에 '워커홀릭'이 많거든요. 저도 약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지는 몰랐는데, 마침 베를린에 살아서 좋은 기회가 왔죠."

괴르네와 온라인 연주를 한 날은 '피아노의 날'이기도 했다. 조성진은 도이치 그라모폰이 '스테이잇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마련한 무료 특별 온라인 연주회에도 참여했다. 자신의 베를린 집에서 브람스 인터메조를 연주했다. 한국시간으로 29일 새벽 12시30분부터 조성진의 연주가 시작됐는데, 한 때 2만명 이상이 시청하기도 했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걸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피아노를 조율한 지 오래돼서 피아노 소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조성진은 5월 8일 새 앨범 '방랑자(The Wanderer) -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 베르크·리스트 피아노 소나타'를 발매한다.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의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을 통해 발표하는 네번째 레코딩이다.

그간 조성진은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베를린 캄머홀, LA 윌트디즈니홀 등 각지에서 연주하며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세계에 이름을 알려왔다. 대륙과 문화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이런 면모가 앨범에 녹아난다.

지금까지는 쇼팽, 드뷔시, 모차르트 등 한



지난 2012년 만 18세에 파리로 유학 '방랑자 삶' 시작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후 독일에 터전잡았지만 호텔이 집 같아  
국내 리사이틀 앞두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피아노 칠 수 있으면"

작곡가의 작품만 녹음했다. 콘셉트에 맞춰 여러 작곡가들을 엮어 녹음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랑자 가곡의 선율을 차용해 탄생한, 다소 우울하지만 동시에 가장 화려한 작품으로 꼽히는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은 무조건 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곡에 맞춰 다른 곡들을 직접 골랐다.

기교적으로 힘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리스트

의 '피아노 소나타 S.178'이 그 중 하나다. 앞선 두 작품을 잇는 곡으로는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Op.1'을 선택했다. 작년 6월 베를린에서 슈베르트와 베르크를 녹음했다. 같은 해 10월에 함부르크에서 리스트 소나타를 녹음했다.

조성진은 "세 곡의 공통점은 소나타 형식의 곡인데 악장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악장 소나타처럼 들리는 공통점이

있죠. 리스트 소나타도 마찬가지로, 베르크 소나타는 한 악장의 곡이긴 하지만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 곡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은 '방랑'이라는 것이 '낭만주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다고 봤다. 특히 '슈베르트'한테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는 5년 마다 돌아오는 쇼팽 콩쿠르의 해다. 넥스트 조성진을 뽑을 차례다. 그런데 4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예정됐던 쇼팽 콩쿠르 예선은 코로나19 여파로 9월로 연기됐다. 본선은 예정대로 10월에 열리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5개월을 더 긴장감 속에서 보내야 한다. 이번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 이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다"고 돌아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저도 벌써 한국 나이로는 30살이 넘었네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에 '비'가 들어가면 20대 후반이라고. 여덟, 아홉, 그래서 책임감도 더 느껴요."

오는 7월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예정한 조성진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세상이 엄혹한 이 때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된 거 같다"고 했다. 에밀 길렐스, 예림 브르프만의 연주를 요즘 많이 듣는다고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 생활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더 느꼈다. "레스토랑에 가서 평범하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뉴시스

## 이난초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로 인정

남원시는 현재 남원시립국악단 예술 총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난초 명창을 문화재청이 14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난초 명창은 남원 출신으로 7세부터 고(故)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홍보가를 이수했다.

또한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하며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량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바탕 중 하나로, 소

문화재청, 동편제 소리 계승... 전승 의지 기반 '탄탄'

현재 남원시립국악단 예술 총감독으로 재직 중

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며,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난초 명창은 동편제 계열의 홍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난초 명창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남원에 뿌리를 둔 동편

제 계열의 홍보가를 전승한 이난초 명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보유자 인정 예고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통해 우리의 문화재가 후세에 제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편제: 판소리 중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징이다.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